

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 시동

도, 신규시장·성장동력 창출 위한 인증부품산업 육성 주력산업 다각화 통해 자생력 강한 경제체질 개선 도모

자동차 부품기업의 완성차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도내 자동차 산업 체질을 해소, 신규시장 개척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인증대체부품산업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제도와 유통은 수직적 종속구조로 되어 있어 일명 순정품으로 불리는 고가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을 사용하는 인증대체부품산업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제도와 유통은 수직적 종속구조로 되어 있어 일명 순정품으로 불리는 고가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을 사용하는 인증대체부품산업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2018년 도 인증대체부품개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 자동차부품 애프터 마켓에서 대체부품 활용률은 프랑스의 경우 43.2%, 미국은 34%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65조 규모(2014년 기준)의 북미 대체부품시장의 90%를 대체부품이 점유하고 있어 국내 업체의 부품경쟁력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개척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완성차 기업의 디자인권 보호 규정 및 수직계열화된 부품시장구조,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인증대체부품 활용

률이 5.6%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부품 인증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차 보험수리 시 소비자가 인증대체부품을 선택한 경우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자동차보험특약을 의무가입으로 신설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보험료 인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완성차업체와 부품디자인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체결, 인증부품 고지 의무화 및 사후관리(A/S)거부 방지 규정이 시행되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총수리비용은 2011년 약 2조원에서 2016년 2조6,000억원으로 6년동안 약 6,000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활성화 정책으로 성장에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인증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작년 12월 국내 최초로 국산자동차 인증부품 개발에 성공하여 제품을 출하한 바 있으며, 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능·소모성 대체부품 시험기관으로 지정(2018년 7월)되어 도내 자동차부품 업체의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도는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도 추경에 13.2억원을 확보, 총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인증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도내 선도기업을 공모선정한 후 3D 역설계를 통한 제품 분석, 시공형태, 공정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인증대체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GM 및 1차 2차 협력사의 우수한 개발 인력 및 생산인력 등의 즉각 활용을 통한 빠른 지역경제 회복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도내 부품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사업다각화 및 매출 증가, 고용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저가 고품질 제품개발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로 인증부품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 대만, 태국 등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며, 금형/가공/도장 등 관련 산업과의 생태계 구축으로 연관산업의 성장추진 및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혁신성장산업국 유희숙 국장은 "전북도가 인증대체부품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자동차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과 소통하고 협업을 결과로 국산자동차 1호 인증대체부품 개발이 성공하게 되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우리 지역을 인증대체부품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기업과의 협력 및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고사리 손으로 만드는 케이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주관한 우리 밀 케이크 만들기 경연대회가 8일 전북 전주시 풍년제과 우리 밀 제과, 제빵 체험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경연대회에 참가한 전주교대 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전북스마트쉽센터, 정보화역기능 해소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해 전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전북스마트쉽센터가 8일 우석대학교에서 지역주민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고 건강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과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행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스마트폰 기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

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센터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주호성중학교, 전주한옥마을, 완산중학교에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홍보부스에서는 청소년 및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자가진단, 해석상담, 바른 사용 안내 등을 진행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청소년의 자발적인 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앞으로 전북스마트쉽센터에서는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의 가치 있는 활용 방법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ICT)관련 미래유망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게 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와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한 바른 정보통신기술(CT)진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국가안전대진단 마무리... 안전신고율 전국 1위 쾌거

위험시설 등 6394개소 점검 · 880건 지적 · 행정처분 8건

전북도는 올해 2월부터 추진된 '2019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하고 모두 880건을 지적했다.

도는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도내 전역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61일 동안 1만942명이 동원돼 총 639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며 880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했다.

민간인 참여는 전체 1만942명의 51%(5574명)에 달했으며, 이밖에도

안전신문고(앱)를 통한 안전신고율이 인구대비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다는 평가다.

지적된 880개소 중 보수·보강 필요 시설 619개소,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설 7개소이며, 현재까지 300개소(현시정 254, 보수보강완료 46)가 조치완료 됐으며, 조치중인 106건을 비롯한 474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례는 보수·보강은 터널 라이닝 균열 보수, 교량 접속도로 포장 균열 재포장, 지하층 출입문 설치, 노후된 옥상방수층 보수, 공연장 관

람석 안전높이 보강, 노후화에 따른 낙석방지책 재설치 등이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안전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재난위험시설 7개소이며, 행정처분은 주로 소방분야로 유도등 점등 불량, 화재속보기 불량, 소화수조 누수 등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은 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대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시기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운수권은 국가의 자산, 적극 활용으로 국민 편익 향상”

이스타항공, 새로운 중국노선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본격 준비

이스타항공이 새로운 중국 노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노선 운영 준비에 나선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일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에서 6개 노선 총 27회의 운수권을 확보했다.

추가로 확보한 노선은 인천-상하이(주7회)노선을 비롯해 제주-상하이(주7회), 인천-정저우(주4회), 부산-엔지(주3회), 청주-하얼빈(주3회), 청주-장가계(주3회) 노선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천 공항에서 출발하는 상하이 노선과 정저우 노선을 확보했다.

인천-상하이 노선의 경우 현재 대한항공이 주 21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28회, 정저우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이 주 7회 단독 운항하고 있던 노선으로 이스타항공이 노선을 확보함으로써 양대 FSC의 독과점을 해소하게 됐다.

인천-상하이 노선은 관광과 비즈니스 수요가 많지만 상하이공항의 포화

로 슬롯(SLOT) 항공기 이착륙 허가시간 확보가 쉽지 않은 노선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기존 청주-상하이 노선의 운항 경험과 현지 인프라 등을 활용해 인천-상하이 노선의 최우선 취항을 목표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제주-상하이 노선을 연계한 상품 개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하나의 인천 노선인 정저우의 경우 중국의 낙양 소림사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해 관광과 연계된 상품을 개발해 관광 중심의 노선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정저우 인근의 제남을 통해 이루어지던 중국의 대표 명산 태항산의 관광수요까지 끌어 올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은 청주-하얼빈, 장가계, 부산-엔지 등 지방발 중국 노선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지방에서도 수요

가 충분한 장가계 노선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방발 중국 노선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경제와 공익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총 21대의 항공기를 보유 중이나 지난 3월 737맥스 8 기종 2대를 운항중지해 19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중국노선 운영과 하반기 노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B737-800 기종 2대를 추가 확보해 7월 중 도입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중국 노선의 신규취항은 절차상 3~5개월이 소요됨으로 배분과 함께 바로 노선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며, "2010년부터 중국 노선 확보를 위해 국적 항공사 중 가장 많은 부정기편을 띄우며 노하우를 쌓아 왔던 만큼 신규 취항을 통해 새로운 노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국가 자선인 운수권이 국민의 항공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